

2024년 대만 고분자학회를 다녀와서

대만 고분자학회의 정기 연차 학술 대회인 2024년 대만 고분자학회가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2일간 대만 타이난(Tainan, 台南市)시의 국립 성공 대학교(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에서 열렸다. 본 학회는 10개가 넘는 다양한 세션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 한 세션으로 한국과 대만 고분자학회에서 양국 간의 고분자학회 사이의 연구 협력과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Modern Challenges in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라는 주제로 한국·대만·일본 삼국의 국제 교류 연구 세션이 준비되었다.

2012년 MOU 체결 후 매년 한국과 대만의 고분자 연구자들이 양국을 방문하며 활발히 운영되어온 이 국제 세션은 2021년과 2022년 COVID-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2022년 추계 한국고분자학회 때부터 대만 고분자학회 측의 방문을 통해 다시 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한국고분자학회에서는 본부를 대표하여 한양대학교 강영종 교수, 서울·경기·인천 권역을 대표하여 인하대학교 김명웅 교수와 한양대학교 윤홍석 교수, 경상권역을 대표하여 부경대학교 전윤석 교수, 그리고 충청권역을 대표하여 충남대학교 나준희 교수가 참가해 발표하였다.

이번 교류 세션에서는 한국·대만·일본에서 온 17명의 중견 및 신진 연구자들이 각각 30분과 20분 동안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자신들의 연구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제는 고분자 물리에서부터 자가 치유 고분자, 고분자를 이용한 광전기 소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이를 통해 고분자 연구의 기초부터 응용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를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 세션 기간 동안, 발표 시간은 물론 커피 브레이크와 식사 시간에도 연구 주제에 대한 열정적인 토론이 이어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구에 대해 질문하고 논의하는 심도 깊은 학문적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 상호 연구 분야와 관심사가 맞는 연구자들이 국제 공동 연구를 약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는 국제 학술 교류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을 상기시켜 주며,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며 잠시 잊혀졌던 대면 학술회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만들어 주었다. 앞으로도 한국과 대만을 오가며 지속적으로 개최 될 본 국제 교류 세션이 더욱 기대되는 큰 이유들 중의 하나이다.

이번 학회는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한국·대만·일본 삼국 간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지만, 인적 교류 측면에서도 대만 학회의 주최로 다채로운 네트워킹 시간들이 마련되어 많은 교수님들이 서로 친분을 쌓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대만 학회에서는 국립 대만 과학기술대학교의 Jyh-Chien Chen 교수를 비롯한 현지의 여러 교수들과 학생들이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을 향한 세심한 노력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학회의 첫 날 저녁에는 학회 주최 측에서 준비한 만찬이 있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국립 성공 대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과 대만 고분자학회의 Jiun-Tai Chen 교수의 스탠딩 코메디는 큰 인상을 남겼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대만 고분자학회 회원들과 국제 세션 참가자들이 함께 즐기며 하나되는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다. 대만 고분자학회의 이러한 노력을 보며, 학문적 교류 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킹의 가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학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대만 고분자학회 관계자 분들과 중간에서 소통에 힘써주신 여러 한국고분자학회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글을 마친다.



2024년 대만 고분자학회에 참가한 한국고분자학회 회원들과 대만 고분자학회 회원들(왼쪽부터 Han-Yu Hsueh, 전윤석, 김명웅, 윤홍석, Hsiu-Hui Chen, 강영종, Chih-Feng Huang 교수).

〈한양대학교 화학과 윤홍석〉